

NOROO

NOROO

Autumn. 2016



Autumn. 2016

편지。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6년 가을 41호

NOROO



Special Theme

편지를 쓰다

06 Interview

편지를 열어 마음을 읽는다

10 Information

편지 속에서 멈춘 시간들

14 Interview

이메일의 인간성

Culture Gallery

18 Finance

이제 주식투자도 알파고 시대!
로보어드바이저 바로 알기

20 Book

필사, 손으로 새기는 명문장

22 Health

소중한 눈을 위한 작은 실천

24 Festival

깊어지는 밤에는 반짝반짝 빛축제

NOROO People

28 NOROO E-UM

미래를 향해 넓은 소통의 길을 내다
노루이음의 ㈜노루페인트 김수경 사장 인터뷰

32 Focus on NOROO

NOROO, 제주여행의 베이스캠프를 꾸미다
제주올레여행자센터

36 Social Contribution

사랑하기에 밝게, 이웃이기에 함께
㈜노루페인트와 대원페인트건설의
성베드로학교 페인팅

42 Family Trip

노루의 선비들, 가을을 걷다
㈜노루오토코팅 도료생산팀

46 News Briefing

50 NOROO Way Restart

NOROO Way로 새롭게 시작한다
NOROO Way Restart

51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노루홀딩스 인사총무팀 조용걸 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A동 10층
T:02-2191-7747

㈜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자남철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노루오토코팅 전략기획팀 안세현 주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33

㈜노루케미칼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청단로 285번길 13
T:031-599-7276

㈜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승아 사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0

㈜노루코일코팅 지원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486

㈜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노루일앤씨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청단로 285번길 8
T:031-599-7276

칼라메이트㈜ 업무총괄팀 유은아 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79



편지를.
쓰다.

가끔, 편지가 그리워집니다. 스마트폰의 분절된 텍스트로는 닿을 수 없는 내면에 긴 문장으로 구불구불 길을 내고 싶습니다. 손으로 적어 종이봉투에 담아 보내며 설레듯이, 이메일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설렙니다. 뜻밖의 날에 귀한 이에게 도착해 깊이 읽혀졌으면 합니다. 봉투를 열면, 이메일함에 알람 소리가 울리면, 마음 역시 함께 열리고 함께 울리겠지요.

편지를 열어 마음을 읽는다

고도원의 아침편지

아침잠을 깨우는 것이 알람 소리라면, 잠들었던 생각을 깨우는 것은 한 통의 편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의미 없는 메일이 쌓여 통째로 반송함처럼 보이던 메일함도, 특별한 메일 한 통으로 인해 소중한 우편함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도원의 아침편지>. 오늘도 358만 명이 그의 편지를 열고 고도원 씨의 마음을 읽습니다. 더불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깨어나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편지는 힘이 세다

맑고 높은 하늘과 노랑게 익어가는 논이 아름다운 가을, 고도원 씨를 만나기 위해 충주의 <깊은산속 옹달샘>을 찾았습니다. 2001년 시작되어 16년째 매일 아침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는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고도원 씨가 인상깊게 읽은 글귀에 자신의 깊은 사색을 곁들여 보내는 메일이죠. 엄청난 다독가로 <뿌리깊은 나무>와 <중앙일보>의 기자,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을 지냈던 고도원 씨가 직접 쓰는 이 메일은, 처음에는 친구들 몇몇에게 보내던 것으로 시작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행복을 전하며 358만여 명의 '아침편지 가족'과 '아침편지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십년 전에는 충주에 <깊은산속 옹달샘>이란 이름의 명상센터도 개원, 치유를 원하는 이들에게 자연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센 편지를 쓰는 이, 고도원 씨입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시간, 편지

“시작은 연애편지였어요.” 고도원 씨는 미소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인상이 좋은 그이지만, 미소는 더욱 특별합니다. 입과 눈이 등글어지는 얼굴이 상대의 마음

을 바나나처럼 말랑말랑, 달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아침편지의 시작이 연애편지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2까지 짝사랑한 소녀에게 거의 매일, 그리고 지금의 아내에게는 군에 있던 3년 동안 거의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쓴 편지가 글 공부가 되었고 지금의 아침편지가 된 것 같아요. 편지는 몸이 만나지 못할 때 사랑과 뜻, 마음을 담아 정신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죠. 오히려 그 시간으로 내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사색과 통찰을 갖게 하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더 긴밀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원 씨는 여기에 설렘을 더하는 것이 손편지라고 말합니다. “손편지의 경우엔 종이와 펜을 고르고, 글씨 모양에도 신경을 쓰며 우체통에 넣고 나면 언제 도착할까, 언제 답장을 받을까 하며 설렘이 시작됩니다. 저는 요즘 명상하며 천천히 걷는데요, 손편지를 쓰고 기다리는 것은 그와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왕자>의 장미처럼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물을 주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침편지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클릭으로 쏜살같이 도착하는 기술의 시간이 아닌, 연애편지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독자들을 생각하며 문장을 고르고 고심했을 고도원 씨의 기나긴 시간 말입니다.



명상으로 쓰는 편지

그러나 편지를 쓰는 시간이 그제젠 때로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로운 내용을 전해야 하니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받는 이들이 혹시 똑같은 내용이라 여기진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러나 답장들로부터 그는 보람과 기쁨, 힘을 얻습니다.

“아침편지로 인한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접니다. 수많은 답장이 오고, 그것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자살을 준비했다가 아침편지로 인해 다시 살 용기를 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 편지가 생명까지 살릴 수 있구나 하는 기쁨, 깊은 슬픔이나 절망에서 끌어올려지는 기쁨에서 얻는 보람이 무척 큼니다. 답장으로 보내주시는 삶과 내면의 이야기에서 통찰을 얻기도 하고요.”

그의 편지를 채우는 또 하나의 힘은 명상입니다. “글재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감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작한 게 명상입니다. 명상은 고통조차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제게 큰 선물이 되었죠.” 명상센터인 <깊은산속 웅달샘>을 만든 것도 그가 읽고 쓰는 편지와 명상의 확장일 것입니다. 편지로 마음이 이어진 이들이 만나는 곳은 아름다

워야 한다는 생각에 땅에 그림을 그리듯이 세운 곳이 바로 이곳. 누구든 와서 만나면 좋아지는 곳을 꿈꾸며 조금씩 가꿔온 <깊은산속 웅달샘>은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에서 치유와 회복의 힘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징검다리

고도원 씨에게 물었습니다. 편지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나고요. 그는 가장 먼저 ‘진심’을 꼽았습니다.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며 자신의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쓰는 것이 편지의 기술이라고요. “핵심은 진심이며 꾸미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 편지를 잘 쓰기 위한 준비 자세였습니다.

고도원 씨 역시 아침편지를 쓸 때는 수많은 이들 중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하며 쓴다고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한 첫 편지는 바로 힘들었던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것이었다고 하죠. 세상 소풍 마치는 날까지 아침편지를 쓰고 떠나고 싶다는 고도원 씨. 누군가에게 행복의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의 편지 덕분에 오늘도 아침이 행복하게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

편지 속에서
멈춘 시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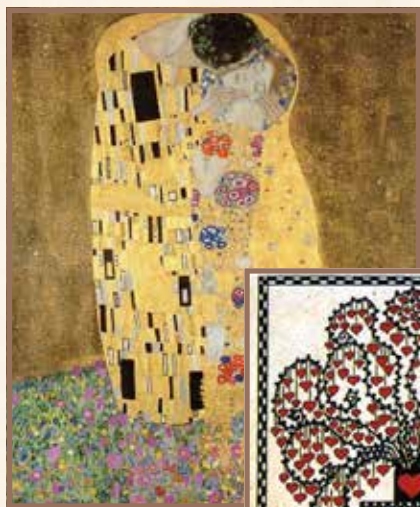
안부를 묻는 편지, 일의 경과를 보고하는 편지, 신년인사를 드리는 편지 등 편지에는 다양한 양식과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되는 것은 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보낸 이와 받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공중에 흩어지는 말 대신 종이나 메일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남겨지기에 편지 글은 말보다 단정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혼자만의 시간에 쓰여지는 독백이기에 더욱 내밀한 감정과 생각이 담깁니다. 그리고 편지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역사와 문학, 그림으로 남아 시대와 철학, 사랑을 전하지요. 그러한 편지들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당신의 서랍 속에도 어딘가 남아 있을 편지, 오랜만에 꺼내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나신걸



편지는 글쓴이의 내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 남겨진 편지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소소한 일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초의 한글 편지는 조선 군관 나신걸(1461~1524)이 고향에서 먼 곳에 부임하게 되면서 아내 신창 맹씨에게 보낸 편지로, 신창 맹씨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지요. 논밭은 소작을 주고 농사는 짓지 말 것이며, 논밭의 세납은 형님께 내어달라고 하라는 등 집안 대소사 일을 당부하고 “안부를 그지없이 수없이 하네. 집에 가서 어머니랑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 가고자 하다가 장수가 혼자 가시며 날 못 가게 하시니 다녀가지 못하네. 이런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하며 재회의 아쉬움을 절절히 적은 편지가 지금 보아도 애뜻합니다. 아마도 멀리 있는 남편을 두고 신창 맹씨가 먼저 죽자, 편지에 담긴 애정이라도 저승길에 함께하길 바라며 이 편지를 관에 넣어주었겠지요. 500여 년 전의 편지가 시대의 한 장면과 부부의 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꽃이 없어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구스타브 클림트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를 떠올려 봅시다. 풀꽃이 가득 핀 언덕 위, 황금빛 가운데 싸인 남녀의 키스는 꿈결 속 풍경 같습니다. 육체는 대지를 덮고 있거나 키스로 교감하는 그들의 정신은 별빛이 명멸하는 우주 속을 고요한 진공 상태로 부유하는 듯합니다. 화려하고 개성 강한 작품을 남긴 화가 클림트가 1907년에 남긴 〈키스〉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의 다른 관능적인 작품에 비해 정념은 덜합니다. 때문에 그림 속 여인은 클림트의 정신적 반려자 에밀리 플뢰게로 유추되곤 하죠. 클림트는 많은 여인들과 자유분방한 연애를 즐겼지만 에밀리 플뢰게와는 함께 살지도,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세월을 함께 했고, 400여 통의 편지와 엽서를 보냈죠. 클림트의 사후, 그녀는 모든 편지를 불태웠지만 이 엽서만은 남겨 두었습니다. 〈키스〉가 그려지던 1907년, 멀리 떨어져 있던 클림트가 수많은 하트로 화려한 꽃 나무를 그려 넣은 엽서였습니다. “꽃이 없어 이것으로 대신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도착한 하트에서 오히려 집요한 사랑이 전해집니다.

로테! 로테! 잘 있어요! 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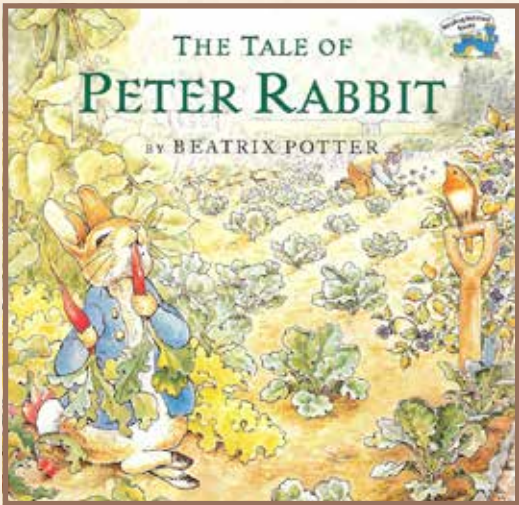
베르테르

“빌헬름, 이 세상에 만일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겠는가. 마치 불빛이 비치지 않는 환등기 같을 걸세!”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네. 내가 이렇듯 외곬으로, 이렇듯 진심으로 간절히 그녀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도 되는 것인지!” 괴테의 소설 속 젊은 베르테르는 친구 빌헬름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로테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토로합니다. 1774년 출판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당시의 엄격한 사회 규범과 사고방식 속에서 가장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한 젊은이가 사랑하고 좌절하고 충돌하는 과정을 아름답고도 처절하게 그려내어 단숨에 괴테를 베스트셀러 작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소설은 괴테의 체험에서 비롯되어 편지 형식을 취함으로써 더없이 솔직하고 생생하게 영혼의 흐름을 보여 줍니다. 독자는 베르테르의 편지를 받는 이가 되어 그가 전하는 로테의 몸짓과 미소 하나하나를 상상하며 함께 기뻐하고, 안타까워하게 되지요. 편지가 아니었다면 그의 절절한 사랑에 이토록 공감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토끼 이야기를 들려 줄게

베아트릭스 포터



“사랑하는 노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줄게. 옛날에 네 마리의 작은 토끼가 있었어. 이름은 플롭시, 뎁시, 코튼테일, 피터였지. 어느 날 피터는 엄마의 당부를 잊고 그만 무서운 맥그리거 아저씨의 채소밭에 들어갔어...” 채소밭에서 상추와 콩을 신나게 뜯어먹던 아기 토끼 피터가 새로 산 파란 재킷을 잃어버리며 허둥지둥 도망친 이야기, 사랑스러운 동화 『피터 래빗』은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베아트릭스 포터는 어느날 옛 가정교사의 어린 아들 노엘이 병으로 눕게 되자, 노엘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지어 편지로 보냈습니다. 노엘은 아름다운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했고, 몇 년 뒤 책으로 꾸며진 이 이야기는 총 23권인 『피터 래빗』 그림책 시리즈의 출발이 되었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살피 정성껏 쓴 편지에서 베아트릭스 포터의 다정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 그대로, 그녀는 일생을 자연보호와 가축 돌보기에 힘썼고, 전 재산을 영국의 자연보호 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했지요.



“새벽에 일어나 문득 시편 속에서 친구들의 이름을 보매, 절반은 이미 죽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져 거의 소식도 듣지 못하게 되었기에 나도 모르게 놀라 탄식하였습니다. 오직 그대와 내가 다행히 별 탈이 없어 사이가 틀어지거나 벌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모이고 흩어짐이 무상하니 오늘은 모였지만 내일은 또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한껏 재미있는 일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어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사이 집에서 술을 빚었는데 아주 향기로워 마실 만합니다. 박환고와 함께 와서 마십시오. 늦게 오면 바닷나 물만 마시게 될 겁니다...” 고려시대의 뛰어난 시인, 이규보가 친구 전탄부에게 보낸 우정의 편지를 줄여 소개합니다. 아홉 살 때부터 시를 짓는 신동으로 알려졌던 그는 술 한 잔에 시 한 편을 지을 정도로 술에도, 시에도 능했지요. 꽃 피는 봄날, 술을 권하는 편지에 “늦게 오면 물만 줄 테다”고 어르는 농이 흥겹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들에게 술을 자제하라 편지하기도 했지요. “돌이켜 보니 술이 바로 내 평생을 망친 놈”이었다고 하면서요.

대통령 각하, 몇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 이러한 현상은 폭탄의 제조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폭탄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이 폭탄을 보트에 싣고 항구에 가서 폭발시키면, 항구는 물론 그 지역 일부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939년 8월 2일, 아인슈타인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학자 레오 질라드와 에드워드 텔러, 유진 위그너가 쓴 편지에 동의해 서명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아인슈타인-질라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나치 독일이 원자폭탄 개발에 나서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들보다 먼저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작성되었습니다. 실제로 3년 뒤, 미국 정부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945년, 실제 폭발 시험에 성공하였죠. 하지만 독일은 이미 개발을 포기한 상태였고, 곧 아인슈타인은 원폭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이 편지에 서명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졸곧 핵전쟁에 반대했지요. 편지를 작성했던 질라드 역시 반핵군축을 촉구하는 평화주의자 모임에 창립회원으로 참여했답니다

멈춰진 시간 속 편지를 읽다

베르메르

17세기 네덜란드의 상류사회에서는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고 생활의 일부이자 일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페이스북과 카톡을 필수적으로 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른 서한쓰기』(1643)란 책까지 인기를 끌었다는데요, 여기 적힌 연애편지 쓰는 법은 이렇습니다. 남성이 고백의 편지를 보내면 여성은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절제의 답변을 보내고, 다시금 남성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면 여성은 담담함을 잃지 않되, 상냥하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좋다고 하는군요. 당시, 마을과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린 네덜란드의 장르화 화가들은 이 연애편지의 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로 유명한 베르메르도 화폭에 편지를 자주 등장시켰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깊은 상념에 빠진 모습으로 편지를 읽고, 뜻밖의 편지에 깜짝 놀라며, 편지를 쓰다가 장난스레 우리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지된 시간 속의 편지를 궁금해 하게 되죠. 어떤 내용일지,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낼 건지 등등, 그림 속 작은 종이가 여러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메일의 인간성

글 · 박덕규(시인, 소설가)



종이에 글씨를 써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옛날식 편지를 쓴 지 꽤 오래 됐습니다. 물론 이메일이 보편화된 이후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종이편지보다 더 자주 쓸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뜻을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도 있지요. 또는 그 내용을 반복하거나 수정하는 뜻을 금세 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로 보내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전자통신 시대를 지나 인터넷시대를 맞이해 종이편지를 보낼 때보다 훨씬 더 자주 더 많은 정보를 이메일로 주고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짐작하시겠지만 사정이 아무리 이리 됐어도 저는 종이편지의 기능을 이메일이 온전히 다 잇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이편지 시절 손글씨로 쓰는 일로부터 편지를 봉투에 넣어 풀칠로 봉투를 닫고 그리고 그 봉투를 우체통에 넣는 과정이나 반대로 누군가의 편지를 받아 봉투를 열고 편지지에 쓰인 글씨를 읽는 과정은 이메일에서는 거의 생략돼 버립니다. 보내는 편지에 대한 염려와 기대, 받는 편지에 대한 설렘과 아쉬움 같은 감정의 폭도 아무래도 종이글씨가 이메일보다 훨씬 컸을 것입니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이메일은 종이편지에 비해 감정이 메마른 상태로 접하게 되는 듯합니다. 대개는 빨리 써서 단번에 송신하기 때문에 자기 글을 검토하는 시간도 줄고, 손글씨 때보다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것도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걸 수신자 역시 그대로 다 양해해 주는 편입니다. 인터넷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글쓰기의 민주화가 일어났고 이것이 편지문화에도 그대로 나타나 전국민 전인류가 누구에게나 쉽게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으니 거기 정서의

울림이 생기는 쓰기와 읽기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또한 수신자 외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면적인 얘기는 피하는 관습이 생겨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개인감정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둘만 알아야 할 길 썼거나 한 편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어 당혹스러웠던 경험도 이메일 쪽이 훨씬 잦았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메일에는 감정의 절제가 정보의 정확한 교류 못지않은 필수 사항이 된 듯도 싶습니다. 공연히 오해받을 만한 얘기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사실 전달 외의 다른 내용에는 정성을 덜 들여도 상관없는 편지문화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지난 종이편지 시대가 지금의 이메일 시대보다 훨씬 인간적인 사회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에 나타나는 정서의 마멸을 안타까워해서 종이편지를 쓰자는 주장을 펼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종이편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류가 글자를 공용할 수 있게 되고 종이를 발명하면서부터 쓰게 된 거니까 그 이전 종이가 없던 시절이나 아니면 문자가 없던 시절의 편지 형태와 대비되는 어떤 특징,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보다 아주 비정서적인 특징이 경험되지 않았을까요? 종이매체의 압도적인 위력이 인터넷매체의 그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이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종이편지 시대의 인간이 그 시대다운 인간다움을 종이편지로써 드러낸 것처럼 결국 이 시대의 인간 또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인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 다 해서 틀릴 게 전혀 없습니다. 이메일의 인간다움? 그게



종이편지 시대의 인간이 그 시대다운 인간다움을 종이편지로써 드러낸 것처럼 결국 이 시대의 인간 또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인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될까요? 내 마음의 염려와 기대도, 상대 마음에 대한 설렘과 아쉬움도 모두 미약해진 자리, 감정을 절제하면서 정서가 마멸된 그 자리에 무엇이 생겨나 있는 걸까요? 사실 전달 외의 것들은 무시해도 좋을 내용으로 채우는 편지에서 과연 어떤 인간다움이 체험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도 여러 통의 이메일 편지를 쓰고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나 선전, 자료의 송수신, 공지나 공적 사실의 확인 같은 걸 빼면 사실 사적인 교신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옛 종이편지와 같은 걸 쓴 적이 언제였나 싶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걸 쓸 필요가 없는 나이가 되었다 싶어 다소 씁쓸한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인간인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과 소통하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인 편지를 주고받지 않을 리 없고 또한 그러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이메일 편지는 소통의 신속성, 분량의 무제한성, 문자 외 매체와의 결합성이라는 면에서 탁월한 활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폐기와 공개의 위험성 또한 상존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메일을 하는 인간은 그 활동성과 위험성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하는 데 감정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쓰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메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초보적인 일입니다. 나아가 저는 정서라고는 눈곱만큼도 느낄 수 없는 편지 안에 숨어 있는 은밀한 내면이 오직 수신자에게만 느껴질 수 있게 씁니다. 위로받거나 분노하거나 폐기하거나 공개하거나 하는 수신자의 태도는 오직 제가 편지의 길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놓은 것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인간이 이메일로써 그 많은 것을 주고받고 살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걸 가능하게 하는 길, 인간은 그 길 위에 있었고 제 글쓰기도 거기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고 있는 이메일의 인간성입니다.

박덕규

1958년생으로 대구에서 성장했으며,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1980년 '시운동' 창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 등단,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평론 당선으로 평론가 등단, 1994년 <상상>에 소설을 발표하면서 소설가 등단. 시집 『아름다운 사냥』(1984), 『꿀묵을 나는 나비』(2014), 소설집 『날아라 거북이!』(1996), 『포구에서 온 편지』(2000), 장편소설 『시인들이 살았던 집』(1997), 『발과 사랑』(2005), 『사명대사 일본탐정기』(2010), 탈북 소재 소설 선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2012) 등이 있습니다. 현재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CULTURE GALLERY

무섭도록 맹렬한 더위를 쏟아내던 여름이
언제였던가 싶도록 가을은 깊어가기만 합니다.
단풍이 길을 덮으면, 가을도 바닥에 다다르겠지요.
낙엽의 방향대로, 내 마음도 깊이깊이
살펴보는 계절입니다



이제 주식투자도 알파고 시대! 로보어드바이저 바로 알기

알파고(AlphaGo)가 바둑천재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하며 전 세계가 인공지능의 위력에 놀라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일로 예상했던 인공지능의 영역이 금융투자시장의 자산관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적의 투자를 제안하는 금융컨설턴트 역할을 대신할 로보어드바이저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제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온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 알아보자.

글 · 이경숙

매월 일정금액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씨. 효율적인 주식투자를 진행하고 싶지만 유명한 금융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거나 일임계약을 맺기에는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 자문수수료 등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고 투자금액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에는 적은 편이라 오로지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다 보니 들쭉날쭉한 투자 수익률이 고민이다. 이런 A씨에게 반가운 서비스가 최근 생겼다. IT,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개발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RA)는 A씨처럼 금융컨설턴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투자자문 및 운용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 전문가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투자자의 성향과 금융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내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투자전략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매해 운용규모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들이 각각 자체기술을 개발하거나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한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비용 부담 없이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투자성향과 재무목표 등을 파악해 최적의 투자 대상과 매매 전략을 제시하는 대신 자문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금융컨설턴트의 역할을 로보어드바이저가 담당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는 자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사에서 자산관리나 투자상담을 받으려면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의 예탁금을 넣어줘야 하는 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는 소액의 자본금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 맞춤형 자산관리를 받기 애매한 사회초년생이나 개인투자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

Tip.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대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문·일임을 수행할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시험 무대)를 운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는 증권·은행·자문사 등 총 34개사가 참여신청을 완료하여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성 등을 심사받을 예정이며 최종 심의는 2017년 4월 말까지이다. 모든 절차를 통과한 업체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홈페이지(www.ratestbe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로보어드바이저는 금융사에 따라 자체개발시스템을 통하거나 자문사의 시스템과 연계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고객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고객의 성향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를 진행하거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주도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온라인 상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목표 등을 설정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최적의 포트폴리오 모델을 비롯한 주식종목/금융상품, 매수매도 타이밍, 리스크 관리, 유용한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다. 대신증권 '웰스 어드바이저', 삼성증권 '삼성 POP 로보어드바이저', 유안타증권 '티레이더', 키움증권 '스톡봇', 현대증권 'able 로보랩', NH투자증권 'QV 로보어카운트' 등이 대표적이다. 변화무쌍한 시장정보에 대처하기 힘들고 직접투자와 운용이 부담스럽다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된다. 투자정보 수집과 분석에서 강점이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자금의 운용을 일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대표적 상품으로는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 퀴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펀드', 한국투자증권 '키움 퀴터백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증권투자신탁', NH투자증권 'NH-Amundi 다셈버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펀드', KB투자증권이 퀴터백자산운용과 함께 사모로 조성하는 '로보IPO펀드' 등이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의 강점은 컴퓨터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반면 투자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만을 제시해 내재위험이 따를 수도 있으니 운용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운용사의 신뢰성도 체크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Culture Gallery

BOOK



『오늘, 행복을 쓰다』 중

필사, 손으로 새기는 명문장

최근, 서점의 시와 에세이 코너에서 필사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름난 문인들이 엄선한 명문장이며 시를 만나는 것도 기쁜 일인데, 독자의 필사를 위해 그 옆에 다소 곳이 마련된 백지 또한 설렘을 준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며, 마음에 새기는 것은 독서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다. 정갈한 활자와 맛깔을 필사는 마음에 새긴 문장으로 찍는 도장과도 같다. 여러 필사책들 중 곁에 오래오래 두고 싶은 도장들을 골랐다.

아들러의 행복과 긍정 메시지

『오늘, 행복을 쓰다』 김정민 / 북로그컴퍼니

『미움 받을 용기』가 공전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우리나라에 아들러 심리학 열풍이 불고 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삶의 목표와 생활양식 역시 내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며,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행복해진다는 아들러의 주장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행복을 쓰다』는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주장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가려 뽑았으며 저자가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도 함께 엮었다.

책 속에서 >

삶의 괴란함이나 괴로움은

외부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서 비롯된다.

모든 괴로움은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모든 평화와 행복도

다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 삶의 괴로움은 내 마음이 만든다

읽고 쓰고 외워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들기

『필독, 필사』 고종석 / 로고폴리스

인문학적 지식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종석이 인문학 에세이부터 자연과학 서적,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전에서 가려 뽑은 63편의 영어 명문장을 한 권의 책 속에 담았다. 인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지성들의 인문학적 성찰과 아포리즘,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를 담고 있는 문장들을 영어와 한국어로 필사해봄으로써 그 의미를 이중으로 사유하고 음미해볼 수 있는 책이다. 여기에 단편적인 문장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지성들의 사유와, 시대적 의미, 문학적 의의 등에 대해 저자가 짚은 해설을 덧붙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책 속에서 >

Nothing is more dangerous than an idea,
when it is the only one you have.

오로지 한 생각만을 지녔다면, 그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 알랭(1868~1951), 『종교론』(1938)

∴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이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다. ‘빠’가 되지 말자. 그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하고, 한 가지 면만 본다면 그것은 가장 나쁜 의미의 종교가 된다.



꼭 한 번은 써보고 싶은 시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김용택 / 예담

‘섬진강 시인’이란 별칭으로 잘 알려진 시인 김용택이 이번에는 ‘독자들도 꼭 한번은 따라 써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101편의 시를 엄선했다. 김소월, 윤동주같이 친근한 작가의 작품은 물론, 폴 엘뤼아르, 프리드리히 니체, 요한 괴테 등 외국 작가의 메시지까지 다양하게 수록하였고, 김용택 시인의 시 10편도 함께 소개했다. 독자는 시인이 바라보는 미완의 세상을 글자 하나하나 따라 쓰면서 나만의 세계로 완성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총 111편의 시를 따라가다 보면 시가 해매는 우리 마음을 잡아줄지도 모른다. 어쩌면 밤하늘의 별들이 내 슬픔을 가져갈지도 모른다.

책 속에서 >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으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 오르텡스 블루, 〈사막〉





소중한 눈을 위한 작은 실천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일상화되면서 가장 혹사당하는 것은 눈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잠들며 알람을 설정하기까지 하루 종일 눈은 가까운 거리에서 빛에 쏘이며 피로감이 높아지고 심하게는 통증까지 오기도 한다. 몸에도 휴식과 운동이 필요하듯, 눈도 함께 관리해 주자. 소소한 운동과 간단한 습관으로 불편한 증상을 없앨 뿐 아니라 시력감퇴도 늦출 수 있다.



01. 눈둘레근 마사지

눈둘레근은 말 그대로 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다. 이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 눈물순환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눈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다.

* 방법

- 손가락 3개를 이용하여 눈썹 위에서부터 광대뼈 위를 지나 원을 그리듯이 가볍게 자극한다.
- 눈 주위가 따뜻해져 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손가락에 적당히 힘을 준다.
- 안쪽과 바깥쪽으로 회전하며 각 5회 실시한다.



02. 원근법 트레이닝

안근을 단련하는 기본 운동이다. 모양체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 원근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근시가 있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 방법

- 자신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손은 멀리, 한쪽 손은 눈 앞 가까이에 들고 엄지손가락을 세운다.
- 멀리 뻗은 손의 엄지손가락을 5초간 바라본 후 가까운 손의 엄지손가락을 5초간 바라본다.
- 이 과정을 10회 정도 반복하자.

03. 손바닥 온열 마사지

눈을 따뜻하게 해 안구 근육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다. 눈이 피로할 때 언제 어디서든 실시할 수 있다.

* 방법

- 양 손바닥을 마주하고 30회 정도 문지른다.
- 따뜻해진 손바닥을 눈꺼풀 위에 30초간 올려놓는다. 손바닥의 도통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온기가 눈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사람은 렌즈가 빠지지 않도록 눈 위쪽이나 아래쪽 뼈에 손을 가져다 댄다는 느낌으로만 실시한다)



04. 찬죽 자극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 근처를 살살 눌러보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움푹한 곳이 있는데 이곳을 '찬죽(攢竹)'이라 한다. 이곳은 근시나 노안, 안정피로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자극하는 경혈로 잘 알려져 있다.

* 방법

- 엄지손가락을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에 얹고 가볍게 힘을 주어 자극한다.
- 이 상태를 10초간 유지한다. 하루에 한 번만 실시해도 좋다.



05. 사백 자극

사백은 눈동자 중앙의 아래쪽 뼈에서 1cm 정도 아래에 위치한 오목한 곳으로, 사(四)는 사방팔방을, 백(白)은 빛을 의미하여 주위를 깨끗하게 잘 보이게 한다는 뜻을 지닌 경혈이다. 시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경혈로 안구건조증, 충혈, 마비의 개선을 돕는다

* 방법

- 엄지손가락에 가볍게 힘을 주어 사백을 누른다.
- 10초간 누르며 하루에 한 번만 실시해도 좋다.

책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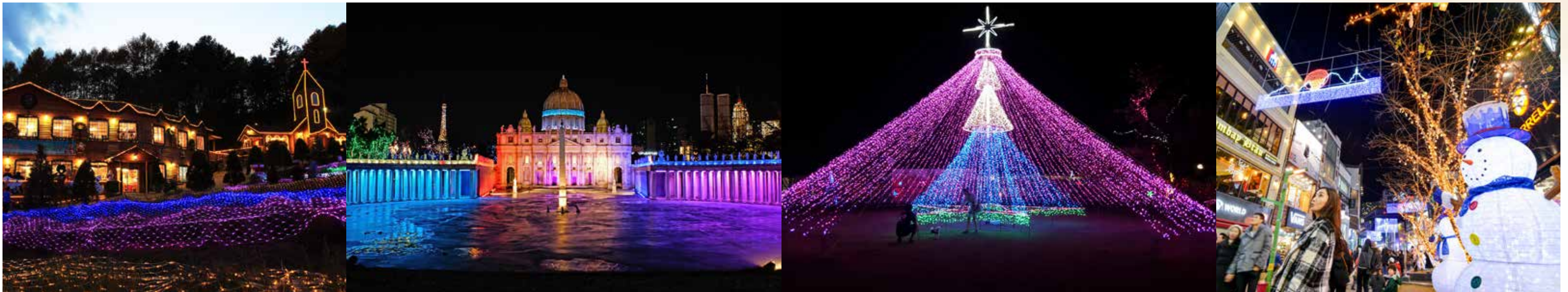


7일만에 눈이 '확' 좋아진다 시미즈 마코토 / 싸이프레스

「7일만에 눈이 '확' 좋아진다」의 저자인 시미즈 마코토는 특이하게도 자체 교정 전문 지도자다. 일본의 유명 자체 교정 전문가인 그는 약 12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의 자체 교정을 담당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자세와 시력, 통증, 비만 등의 신체적 증상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이 책은 굵은 척추 교정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고 근시, 노안, 안정피로, 비문증 등 눈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시력 회복법을 소개한다.

깊어지는 밤에는 반짝반짝 빛축제

붉은 별처럼 반짝이던 단풍들이 가을과 함께 저물어가면 점점 더 깊어질 밤을 밝힐 아름다운 빛들이 간절해진다. 밤을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명들이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빛축제를 소개한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반짝반짝, 화려함을 더한다.



포천 허브아일랜드 불빛동화축제

포천허브아일랜드에서는 빨리 저무는 해를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햇빛 속에 자연을 감상했다면, 해가 저문 후엔 오색찬란한 라이팅쇼가 시작되니 말이다. 산정호수, 아트밸리와 더불어 2015 경기북부의 '별 볼 일 있는 야간 관광 10선'에 소개된 포천허브아일랜드의 불빛동화축제는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산타마을에서 신나는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불빛들의 현란한 퍼포먼스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SBS 드라마 〈하이트 지킬, 나〉의 배경으로 나왔던 폭포정원에 새로이 조성된 백만송이 로즈불빛가든과 야외정원의 오색찬란한 불빛나무들도 반짝이는 추억을 만들어 준다. 300미터의 불빛하트터널과 300여 개의 산타 조형물 사이도 거닐며 드라마와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

허브아일랜드 www.herbisland.co.kr 031-535-6494

부천 아인스월드 세계 야경 판타지 빛 축제

빛축제를 소개할 때 빠뜨리면 섭섭할 곳이 바로 부천 아인스월드다. 세계의 유명 건축물들을 미니어처로 집합시켜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천 아인스월드는 밤이 되면 더욱 특별한 매력을 발산한다. 건축물들에 4방향 조명(4way lighting system : 내부+경관+주변+외각)을 연출, 실제 건물 야경을 보는 듯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프랑스존에서는 실제 에펠탑에서 펼쳐지는 라이팅 쇼를 완벽하게 재현했으며 타지마할과 국제무역센터에는 국내 최초 '미디어파사드 기법'을 적용하여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교감하는 'Interactive 3D 프로젝션 맵핑 영상쇼'를 보여준다. 이밖에도 라이브 공연과 매직쇼 등의 볼거리는 낮보다 화려한 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아인스월드 세계야경 판타지 빛 축제는 시즌 1을 거쳐 2014년 12월에 오픈한 시즌2의 새로운 테마로 누적 관람객을 13만 명까지 높이는 등, 부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인스월드 www.aiinsworld.com 032-320-6000

태안 빛축제

태안에 갈 일이 있다면, 긴긴 밤은 이곳을 찾아보자. 툼립과 백합 축제가 연달아 열리는 태안 꽃축제장은 가을꽃축제를 마지막으로 꽃축제를 마무리하지만, 밤에는 연중무휴 꽃이 피어난다. LED 조명으로 밝히는 빛의 꽃들이다. 넓은 대지 위에 조명으로 완성된 다양한 조형물들이 넉넉하게 흩어져서 곳곳에 산책하며 즐길 수 있다. 특히 축제장 중앙의 생태연못에 마련된 사슴섬과 한 쌍의 백조, 배와 연결다리 등이 물 위로 드리운 조명의 불빛은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느끼게 해 준다. 곳곳에 사진을 위해 마련된 포토 스팟들은 사진 초보자들에게도 멋진 결과물을 안겨줄 것이다. 일몰 후의 빛축제는 연중무휴 열리므로 시기를 잘 맞추면 바다와 꽃축제, 캠핑장, 빛축제까지 한번에 즐길 수 있다.

태안 빛축제 www.ffestival.co.kr 041-675-7881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일년 내내 열리는 빛축제도 좋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위한 12월의 조명들은 더욱 특별한 감흥을 낳는다. 지는 해(日)뿐만 아니라, 저무는 해(年)까지 기리는 불빛들이기 때문이다. 부산에서는 11월 26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44일간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열어 다가오는 연말을 축제 분위기로 채우고 새로 맞이하는 밤들을 밝힌다. 축제 장소는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광복로 1.2Km 일대와 용두산 공원 일부 구간이며 크리스마스의 흥겨운 캐롤과 함께 시간에 맞춰 인공눈을 뿌려 시민들에게 뜻밖의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이 축제는 부산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세계 축제협회에서 TV 프로모션 부문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조명들로 부산의 밤은 낮보다 길고, 환할 듯하다. 부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bctf.kr 051-600-4086

앞에서 소개한 빛축제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빛축제들이 상설운영되거나 특별개최되고 있다. 특히 테마파크들의 빛축제는 기존의 구조물들과 어우러져 밤이면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다.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빛축제들을 소개한다.

에버랜드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에버랜드는 기존의 조명에 화려함을 더해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최고조로 완성하는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축제를 연다. 매직가든과 장미원 일대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꾸며진 장식들은 연인들의 프로포즈를 이끌고, 캐롤에 맞춰 조명이 움직이는 뮤직 라이팅 쇼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겨울 시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는 불꽃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www.everland.com / 031-320-5000

부산 렛츠런 파크 일루미아

부산의 렛츠런 파크는 경마장 외에도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국내 최대 빛 테마파크를 표방하여 밤마다 펼쳐지는 렛츠런 일루미아는 꼭 봐야 할 빛축제다. 렛츠런 파크의 호스토리랜드에서 비춰지는 미디어파사드와 무빙라이트, 스페셜 공연의 라이팅페스타와 호스아일랜드의 호수 위에서 펼쳐지는 워터스크린 영상, 레이저 특수효과가 웅장한 빛의 예술을 보여준다. 경마장의 특색을 살린 말의 조형물들 또한 역동적이고도 우아하다.

illumia.co.kr / 051-253-6666

대구 이월드 별빛축제

대구의 대표 테마파크 대구 이월드에서는 10만 송이의 LED 장미 속에 폭 파묻혀 보자. 우뚝 선 83타워 아래 산책하기 좋은 코스로 펼쳐진 이월드의 별빛축제는 구비구비 길마다 그 풍경이 달라진다. 남산타워보다 높은 83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이월드의 빛축제는 더욱 이색적이다. 산타축제에서 미션에 참여해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보자.

www.eworld.kr / 053-620-0253

광주 패밀리 랜드

광주패밀리랜드는 ‘빛의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름다운 밤을 꾸민다. 500만 개의 화려한 조명으로 연인,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포토존을 만들고 추억의 캐릭터들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한다. 밤이 일찍 찾아올수록, 패밀리랜드의 조명은 더 일찍 빛을 발하고, 즐거움을 만날 시간도 빨라진다.

광주패밀리랜드.com / 062-607-8000

사진 · 대구 이월드 별빛축제



NOROO
PEOPLE

알아야 보이고, 보이면 사랑하게 되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미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옛 현인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더 알고, 더 보고자 하는
우리는 NOROO인입니다.



미래를 향해 넓은 소통의 길을 내다

노루이음의 (주)노루페인트 김수경 사장 인터뷰

업무와 조직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솔직하게 소통되는 문화는 미래로 점프할 튼튼한 도약대와 도전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준다. NOROO그룹의 조직문화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창단된 노루이음은 조직문화에 대한 내·외부 사례를 공유하며 도시락 미팅, 사랑의 간식 나누기, HAPPY DAY, 멘토링 제도 등 그룹 내에서 시도했거나 진행중인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노루페인트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에 노루이음은 김수경 사장을 인터뷰 하여 소통의 중요성과 그 방법들을 들어보았다.



조직력 강화를 위한 소통

인터뷰 장소인 (주)노루페인트 안양 본사 2층 회의실에 먼저 도착한 (주)노루페인트 박인 대리와 (주)노루코일코팅 김지수 대리는 조금은 긴장된 표정이었다. 노루이음으로서 그간 여러 활동을 해왔지만 CEO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긴장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 회의실에 들어서며 반가운 악수로 인사를 나눈 김수경 사장은 그들의 긴장을 이해한 듯, 이번 만남의 취지를 직접 짚어가며 노루이음의 활동에 공감하였다.

“노루이음은 신세대와 구세대를 연결하며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주회사 체제에 따라 여러 계열사로 나뉜 노루인들의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만들어진 것이죠? 저 역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간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스스로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박인 대리는 김수경 사장의 말에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체조도 함께 하고, 업무 시간 중에 직접 현장을 다니며 빠른 의사결정을 돕는 김수경 사장의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김수경 사장은 이외에도 또다른 소통의 창구들을 직접 만들어 왔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시장 변화와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



래서 도시락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편한 자리가 밥 먹는 자리니까요” 그의 아이디어로 2013년도에 시작된 도시락 미팅은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 영업, 기술, 구매 등 모든 부서의 구성원들을 골고루 만나게 하였고 1년동안 진행되며 (주)노루페인트와 (주)노루코일코팅 직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후 소통의 창구는 사랑의 간식 나눔과 CEO 메시지로 이어졌다.

“CEO 메시지는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게 회사 안팎의 중요한 변화와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고 저 또한 피드백을 받고자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댓글 등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온라인의 한계로 일방적인 전언이 되어가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분기별로 스마트센터에서

전체 팀장들과 직접 만나 주제별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직적인 구조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소통도 중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 고유의 리더십과 조직문화를 더 잘 살리면서 동시에 시장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겠지요.”

열정과 배려의 NOROO

조직문화로 이야기가 옮겨가자 김지수 대리는 김수경 사장에게 NOROO의 가장 자랑스러운 조직문화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김수경 사장은 ‘노사문화’와 함께 열정과 배려의 문화를 꼽았다. “우리의 노사문화는 대외적으로 부러움을 살 만큼 자랑스럽지요. 그런데 우리의 혁신과 열정, 배려의 문

화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우리의 조직문화를 보수적으로 느끼는 구성원들도 있지만 국내 동종업계 중 새로운 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개척하는 회사가 NOROO입니다. 서로에 대한 정과 배려가 깊은 것도 강점이지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주변의 도움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인 대리가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 직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롤모델로서 직원들에게 해 주실 당부의 말씀’을 청하자 김수경 사장은 귀한 제언을 전했다. “제가 사원이었을 당시와 지금은 사회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세대들의 좌절감이 큰 시대죠. 하지만 어디서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회사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스스로 찾아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변화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변화를 요구해선 혁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요. 또한 네트워킹이 중요한 시대이니만큼, 내 어깨를 빌려주고 동료의 어깨를 빌리며 함께 상생해야 할 것입니다.”

김수경 사장으로부터 다양한 시도와 성공의 이야기를 들으로써 우리는 NOROO의 현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혁신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새삼 깨닫는다.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며, 전하는 것은 소통의 기초다. 노루이음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청하고 나누며 공유와 공감의 장을 넓힐 것이다.



NOROO, 제주여행의 베이스캠프를 꾸미다

제주올레여행자센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라는 나태주의 <꽃>. 어쩌면 여행도 그 시와 같다. 차로 휙 지나가서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 느리게 걷는 여행은 그래서 여행지와 사랑에 빠지게 한다. 타박타박 걸으며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제주를 사랑하게 만든 제주올레. 전국에 도보여행의 문화를 번지게 한 제주올레가 새로이 여행자센터를 내어 제주와의 사랑을 꿈꾸는 이들을 돕는다. 이에 NOROO가 함께했다.



담돌간세 NOROO

제주올레는 제주도를 걸어서 여행하는 도보여행길의 이름이자 그 길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이름이기도 하다. 2007년 시흥리에서 광치기해변까지 이어지는 제1코스를 개장하며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발족한 이래 지금까지 26개의 코스가 개척되며 제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서귀포 시에 여행자 숙소와 사무국, 레스토랑과 카페, 교육장 등을 갖춘 제주올레 여행자센터가 개관했다. 제주 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로 활용될 이 센터를 위해 '담돌간세'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개인의 특별 후원이 이루어졌다. 담돌은 담을 쌓는 돌, 그리고 간세는 제주올레의 상징인 조랑말을 뜻한다. (주)노루페인트는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페인트를 지원하며 든든한 담돌이 되었다.



길이 생기듯, 센터를 만든다

“노루페인트로 페인팅한 결과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제주올레의 슬로건은 걷는 사람이 행복한 길, 길 위에 사는 지역민이 행복한 길, 길을 내어준 자연이 행복한 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행자 센터 역시 친환경을 추구하는데, 노루의 친환경 페인트가 그걸 가능하게 해 줬어요. 컬러들도 굉장히 예쁘고요.” 제주올레 사무국장 안은주 씨는 노루페인트로 인해 편안한 공간이 만들어졌으며 감사와 만족을 표했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를 완성한 것은 (주)노루페인트와 함께, 여러 기관과 사람

들의 후원과 집단지성이었다. 제주올레의 오랜 자원봉사자였던 건축소 소장이 설계를, 사무국 식구와 외부 디자이너들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침구류는 제주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제작을 맡았다. 건강식 집밥으로 서울에서 ‘핫한’ 식당, 소녀방앗간도 제주올레의 컨셉을 반겨 센터 1층에 한정매장을 냈다. 핀란드의 가구 디자이너는 제주의 특징을 살린 업사이클 탁자를 고안, 제주에서 제작했다. 목적지를 향해 많은 사람이 걸음으로써 생겨나는 길처럼,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는 그 철학에 공감하는 많은 이들의 뜻이 모여 완성되었다.

노루페인트, 함께 꿈꾸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 들어서면 왼쪽으로는 레스토랑 겸 카페인 소녀방앗간X제주올레가, 오른쪽으로는 교육장이 위치한다. 교육장은 여행자와 지역민이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배우는 곳으로 (주)노루페인트도 이곳에서 PANTONE Premium Paints로 DIY소품 만들기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층의 올레꾼 전용 샤워실과 사무국을 지나 3층으로 오르면 정갈한 숙소, 올레 스테이가 나온다. 노루페인트로 완성된 복도를 따라 걸으면 작가들이 개성있게 꾸민 객실문을 만날 수 있다. 한라산이 가까이 보이는 4층 옥상 역시 노루페인트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푸른 하늘 아래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방문객들이 인사 나누기 좋은 휴식처가 되었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는 올레꾼이 쉽게 정보를 얻고, 지역민들은 정을 나누며 문화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길의 물리적 거점으로서 소통과 협력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안은주 사무국장의 소개처럼 여행자, 지역민, 자연이 어우러지는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노루페인트로 포근히 감싸인 그곳에 머무는 이들이 제주를 자세히, 오래 보며 사랑하게 되길 함께 꿈꾼다.



교육장에서는 재능나눔 아카데미 ‘배우영 나누영’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다. 노루페인트는 PANTONE Premium Paints를 이용한 DIY 소품 만들기로 여행자, 지역민이 서로 만나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사랑하기에 밝게, 이웃이기에 함께

(주)노루페인트와 대원페인트건설의 성베드로학교 페인팅

“페인트와 컬러의 힘이 이렇게 센 건 줄 처음 알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베드로학교의 박용숙 교장은 환한 얼굴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 (주)노루페인트가 대원페인트건설과 함께 실내 페인팅을 지원한 성베드로학교는 복도의 끝에서 끝까지, 다양한 톤의 컬러로 채워져 있었다. 햇살이 비쳐 들면서 컬러는 때론 밝게, 때론 차분하게 색감을 달리했다. 컬러 속을 오가는 학생들의 웃음이 아름다운 곳, (주)노루페인트와 대원페인트건설이 함께한 성베드로학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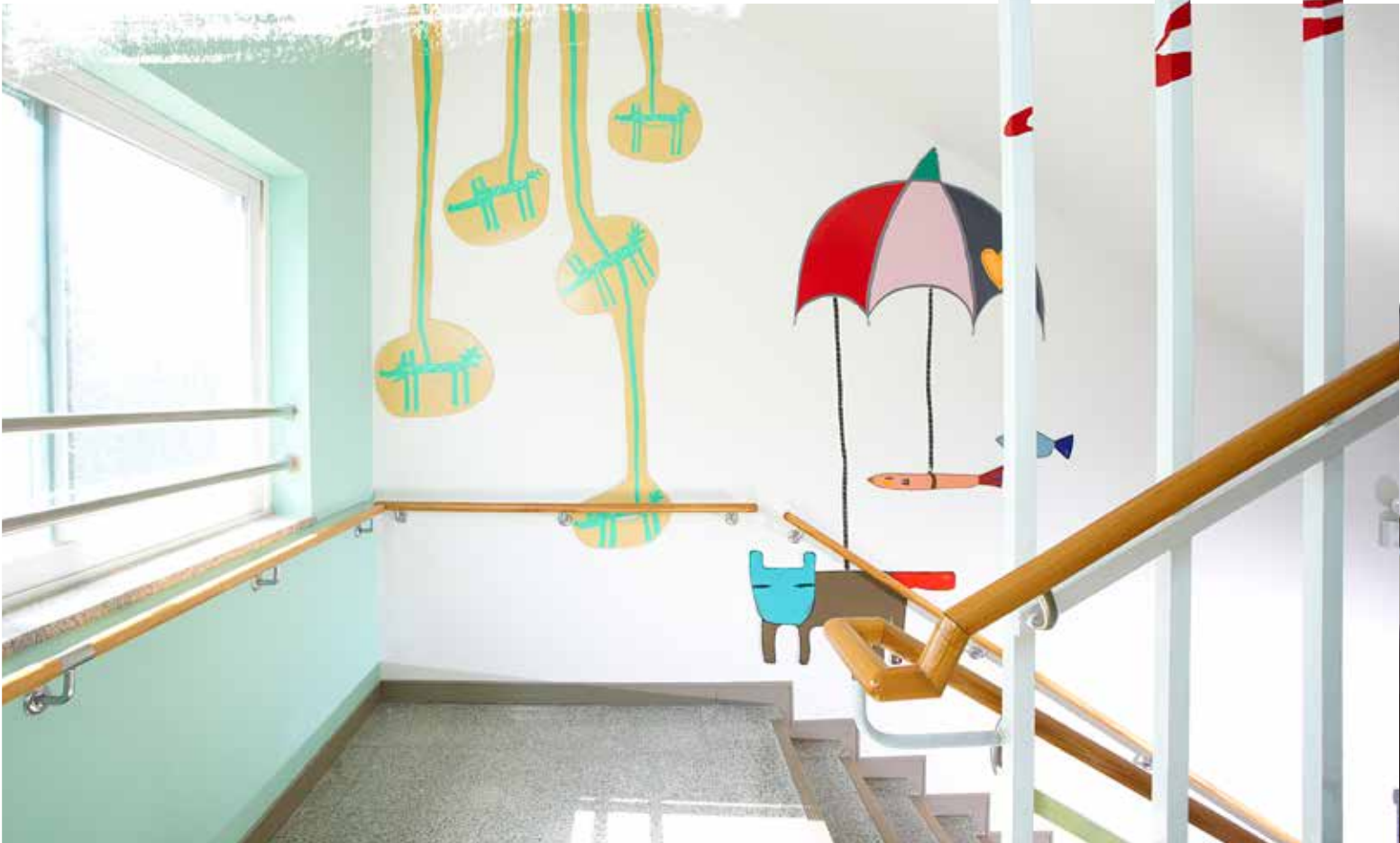
사랑으로 섬기는 학교

성베드로학교는 1974년 설립된 지적장애인 특수학교다. ‘사랑의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한다’는 성공회의 신앙과 선교정신에 입각해 세워져 지금까지 42년의 전통을 지적장애인 학생들과 함께해왔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졸업후과정인 전공과까지 총 26학급의 170여 명 학생들은 7층 건물의 학교에서 아침 9시부터 이르면 오후 3~4시, 늦게는 저녁 6~7시까지 머문다.

“학교는 보통 거의 비슷한 색으로 꾸며져 있죠. 하지만 우리 학교는 좀더 특별하게 꾸미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장애인은 사회에서 소외나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학생들이 오래 머무르는 이 학교만큼은 더 밝고 더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색에 대한 아름다움은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박용숙 교장은 이러한 생각으로 서울시청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시행하는 <2016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시범사업>에 신청, 기쁘게도 10개의 시범학교 중 특수학교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이 관건이었다. 시범학교 선정에는 도장 예산 확보가 우선이었는데, 올해 학교 예산으로는 한꺼번에 전체 건물 내부를 페인팅하기가 빠듯했던 것이다. 급한 마음으로 박용숙 교장과 교직원들은 성베드로학교의 뜻을 알아줄 페인트 회사의 문을 두드렸고, (주)노루페인트가 이에 응답했다.

서울시의 컬러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주)한국색채디자인개발원 C&D연구소에서 디자인한 색채 계획은
무지개 컬러를 컨셉으로 하여 층별로 색상을 다르게 적용,
직관적 층간 구별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NOROO

서울시의 컬러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주)한국색채디자인개발원 C&D연구소에서 디자인한 색채 계획은 무지개 컬러를 컨셉으로 하여 층별로 색상을 다르게 적용, 직관적 층간 구별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지하1층부터 6층까지, 총 7개 층을 서로 다른 색으로, 톤을 달리 해 가며 조율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다. 무엇보다 노련한 색채 감각이 필요한 이 사업에 20년 노하우의 (주)노루페인트 특약점, 대원페인트건설은 최소 인건비로 기꺼이 참여했다.

“특수학교라 고민도 더 많이 하시고, 회의도 자주 하셨지요. 페인팅 솜씨도 정말 깔끔하시더라고요. 색채계획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박용숙 교장과 교직원들의 이야기다. 페인팅 작업이 여름방학 때 진행되었기에 학생들은 개학과 함께 새로운 환경으로 등교할 수 있었다. “작업 중에도 냄새가 나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바뀐 환경을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고 자주 이야기해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요. 노루페인트와 대원페인트는 저희 학교에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큰 가치를 안겨 주셨습니다.”

박용숙 교장은 날씨에 따라 층별로 돋보이는 컬러가 달라서 매일이 기대된다고 한다. 어느 날은 청록색의 4층이, 어느 날은 6층의 보라색이 유난히 마음을 설레게 한다. 1층 현관의 노란색은 늘 화사하게 모두를 반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요. 컬러의 힘이 이처럼 세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성베드로 학교가 실감하는 컬러의 힘을 수치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페인팅 전, 후 학생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여 컬러 컨설팅의 효과를 조사할 예정이다. 컬러에 마음이 동하는 것처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한 (주)노루페인트와 대원페인트건설의 활약이 어떠한 수치로 나올지 궁금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환한 표정과 감사의 인사가 넘치는 교직원들의 미소는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거니 받거니 더불어 사는 삶

대원페인트건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 하는 이는 많지 않다. 누군가 손해를 봄으로써 내가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나의 손해로 누군가가 이익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누군가'로 인해 이익과 손해가 얹치락뒤치락 하며 사업은 이어지고 성공은 가까워진다. 그 이치를 알기에 '누 군가'를 소중히 하는 사람, 대원페인트건설의 강상원 사장이다.



수색대원, 수색의 대원페인트건설

“그렇지. 손해볼 때도 있고 이익볼 때도 있고, 그런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않겠어요?” 대원페인트건설의 강상원 사장은 너털웃음에 어울리는 정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가을날 잘 익은 밤이 떨어지듯 투둑, 농담처럼 건네는 말투에서 넉넉한 인품이 느껴졌다. “성베드로학교 졸업하면서 신경 많이 썼죠. 어떤 작업이든 신경 써서 하는 건 매한가지지만, 이걸 노루페인트에서 직접 부탁한 거니 더할 수밖에요.” 성베드로학교에 페인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주)노루페인트가 협력을 요청한 특약점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에 위치한 대원페인트건설이었다. ‘수색대원’하면 (주)노루페인트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손꼽히는 특약점인 이곳은 꼼꼼한 시공과 마무리, 색감에 대한 예민한 판단으로 유명하다. 이에 서울시의 <2016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시범사업> 컬러 컨설턴트도 강상원 사장의 제안에 따라 컬러를 조정했다. 도안에 따라 천장에도 페인팅을 해야 하자, 강상원 사장은 천장의 석고보드를 떼어다가 테스트를 해 보기까지 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라고 강사장은 말한다. 완벽한 결과를 위해서라면 번거로운 확인은 그에게 당연하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대원페인트건설의 사무실에 들어서면 (주)노루페인트에서 수여한 감사패가 눈에 띈다. 20주년 기념 감사패다. “1993년부터 노루 간판을 달고 판매를 시작했지요. 그후로 죽 노루 간판이었어요. 그동안의 감사패가 여러 개 되지요.” 서른 둘의 젊은 나이, 아무 연고도 없이 페인트 사업을 시작한 그에게 간판을 달아준 곳이 (주)노루페인트였다고 그는 몇 번이고 강조했다.

“당시 지점장이 묻더라고요. 돈도 없고 페인트도 없는데, 뭐가 있느냐고. 난 젊음이 있다고 말했죠.” 그렇게 만난 지 20여 년의 세월 속에 젊음은 연륜으로, 혈기는 의리로 바뀌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간다’는 그의 신조에 따라



지금도 (주)노루페인트는 가장 단단한 매듭으로 함께 가는 동반자다. 신조는 직원과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긴 세월 근속한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일단 한 번 거래를 시작한 고객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대리점과 거래했던 곳이 라면 겸손히 물리난다. “나 혼자 다 할 순 없어요. 함께 가야 오래 가는 거죠”라는 강 사장에 대해 (주)노루페인트 서동준 과장은 늘 한결같은 분이라 말한다.

사람이 모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주)노루페인트가 잘 되어야 특약점이 잘 되고, 특약점이 잘 되어야 (주)노루페인트도 잘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이끈 지 23년. 30평에서 시작했던 매장은 150평 창고와 70여 평의 매장으로 커졌고 공사 현장은 전국으로 넓어졌다. 화물차도 1대에서 9대가 되었다. 페인트 특약점을 시작하는 이들이 배우러 오는 시범사업장 역할도 기꺼이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가 노루에게 배우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지식과 노하우를 나눠주게 되었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사람이 모이고 좋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강 사장의 이야기에서 세상살이의 조화와 지혜를 본다. 성베드로학교 사업에 그가 참여한 까닭을 알겠다. 각기 다른 학생들이 많이 모인 곳, 다채로운 컬러가 조화를 이룬 공간이기에 그가 함께했고, 그렇기에 더욱 아름다워진 것이 아닐까.

노루의 선비들, 가을을 걷다

(주)노루오토코팅 도로생산팀

가을 햇살이 청명한 전주 한옥마을의 토요일 오후, 선비 셋이 나들이를 나섰다. 바람에 날리는 도포 자락의 주인공은 (주)노루오토코팅 도로생산팀의 임대근, 박시우, 김성현 사원. 숲을대문 앞에서 시원하게 “이리 오너라~” 외치면 어울릴 듯한 선비의 모습으로 세 사람은 한옥마을 곳곳에서 한껏 가을을 즐겼다.

과거로 돌아가는 세트장

가을비를 뿌리다가 막 갠 하늘은 말간 햇빛을 한옥마을의 지붕 위에, 주렁주렁 감나무에, 담장 사이사이에 내려 주었다. 하늘에는 아직 남은 구름이 서성거리고 있었지만 햇빛이 비춘 사람들의 얼굴도 맑게 빛나서 마을은 온통 밝았다. 평상시의 옷을 벗고 형형색색의 한복으로 갈아입은 인파는 웃음으로 출렁였다. 추억의 교복을 입고 사각 가방을 든 이들도 눈에 띄었다. 그렇게 과거가 연출되고 연신 사진에 담기는 한옥마을은 거대하고 행복한 촬영용 세트장과도 같았다. 세트장의 의상실에서, (주)노루오토코팅의 임대근, 박시우, 김성현 사원이 선비로 변신하여 등장했다.

“어때? 괜찮아 보여?” 한옥 대여점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세 사람은 머쓱한 얼굴로 서로에게 묻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간편하게 개량한 한복에 운동화 차림이지만 갓 쓰고 부채까지 쥐니 선비라 하기에 모자라지 않다. 남자 셋의 여행에 선비 코스프레라니, 신선한 조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때 아니라면 결코 해 볼 수 없는 경험일 것 같아요.” 중후한 선비, 임대근 사원이 웃으며 성큼성큼 한옥 처마 밑을 걷는다.





그들은 양반 자세로
과거 시험 준비만 하다가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온
서생이 되기도,
나랏일을 걱정하며 먼 산을 보는
충신이 되기도 했다.

허술하고 엉뚱하고 성숙한 선비들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니만큼, 동행한 포토그래퍼는 ‘인생샷’을 남겨 주겠다고 의욕 충만이다. 그의 주문에 따라 세 사람은 대나무 숲 앞에서, 구불구불 소나무 아래에서 포즈를 취했다. 양반 자세로 과거 시험 준비만 하다가 오랜만에 바람 쐬러 나온 서생이 되기도, 나랏일을 걱정하며 먼 산을 보는 충신이 되기도 했다. 또는 함께 투호를 하며 딱밤을 날리는 개구쟁이가 되기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다가 무협 신을 찍기도 했다. 각각 컨셉을 잡아보자 했더니 그들은 서로를 놀리기에 바쁘다. “임대근 형은 엄숙하지만 허술한 말형으로?” “시우는 진지하지만 좀 엉뚱한 컨셉으로요.” “성현이는 성숙한 막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셋은 나란히 걷고 맛있게 먹고 즐거이 웃었다.

아쉬운 것은 딱 하나, 함께 하지 못한 친구 양희건 사원이었다.

어디든 좋다. 우리가 함께라면

원래는 넷이 함께해야 완전한 여행이었다. 안타깝게도 여행에 동행하지 못한 양희건 사원까지 넷은 1~2년 차로 2010년도 즈음에 입사해 어울려 지냈다. 마침 양희건 사원과 임대근 사원은 결혼 했수도 비슷해 통하는 게 많았다. 네 사람은 한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쌓으며 형제이자 친구가 되었다. “자주 만나지만 함께 여행을 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아무래도 결혼해서 가족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사보의 여행 기회가 반가웠던 그들이다.

“장소는 어디든 좋아요. 같이 있으면 어딜 가나 즐거우니까요.” 한옥마을의 오목대에 오른 선비들을 시원한 바람이 마중했다. 갓을 벗어 옆에 놓고 잠시 쉬는 시간. 여행은 그런 쉽다. 한옥마을에서 선비가 되어 잠시 과거를 여행한 것은 특히나 잊지 못할 쉽표가 되어줄 것이다. 사진을 보고 다시금 웃고 이야기 나누며 여행은 추억이 되고, 추억들이 단단히 결집하여 그들은 더욱 견고한 동료가 될 것이다.

이담 게스트하우스

북적거리는 한옥마을 대로 안쪽,
오목대를 마주하고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이담 게스트하우스는 깔끔한 데크와
아기자기한 마당이 인상적인 곳이다.
툇마루에 앉아 기와지붕과
하늘이 그은 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이 새삼 느껴진다.

www.edamhanok.com

010-2455-2580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NOROO 그룹, 창립 71주년 기념 행사 실시



(주)노루홀딩스

NOROO 그룹, 창립 71주년 기념 행사 실시

2016년 10월 31일 오전, 안양공장 내 복지관에서는 NOROO 그룹 창립 7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서 한영재 회장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사업보국의 이념으로 창립한 우리 그룹은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컬러 문화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히며 NOROO 그룹의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을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해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을 지표로 삼아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배와 후손까지 행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생존을 넘어선 위대한 기업으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화학사업 부문에서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력에 제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외형 확대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 선점을 더욱 확대하고, 농생명사업 부문에서는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의 위치에 걸맞은 안정적 기반 구축을 조속히 완수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NOROO의 역사를 돌아봄과 동시에 ‘청년 NOROO의 새로운 출발과 미래를 시작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선언한 한영재 회장의 기념사는 NOROO인으로서의 긍지를 확인하

고 앞으로의 도전을 각오하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는 지금의 NOROO를 가능케 한 NOROO인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축하와 감사,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되었다.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그룹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주)노루홀딩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 그룹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임원들을 위해서는 서울과 안양에서 2회 교육을 실시, 법안의 자세한 내용과 주의할 점 등을 꼼꼼하게 알아 보았다.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12년도에 발의하여 2015년도에 제정,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공직자 및 언론인, 교직원 등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5일,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 여 곳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접촉 시 더욱 철저히 사규와 법률을 따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노루페인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벽화 진행

(주)노루페인트

(주)노루페인트,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벽화 진행

지난 10월 27일, 28일에 걸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송정교의 벽면과 교각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는 (주)노루페인트가 사회공헌활동으로 벽화 그리기에 페인팅을 지원한 결과로써,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의 연계로 동서울대학교, 광주시청, 농협, 법사랑위원 등이 노루페인트(한결상사)와 협업하여 이룬 것이다. 이번 벽화 그리기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한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는 적극적인 페인트 자원과 봉사 정신으로 참여해 준 노루페인트(한결상사)에 감사의 말을 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범지역에 대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게릴라 가드닝, 벽화 그리기 등을 보다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하여 (주)노루페인트 및 여러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노루페인트, 토요타(분당) 전시장에서 페인팅 클래스 진행

(주)노루페인트, 토요타(분당) 전시장에서 페인팅 클래스 진행

(주)노루페인트는 지난 10월 15일, 토요타 분당 전시장 2층에서 친환경 셀프 인테리어 페인팅 클래스를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페인팅 클래스는 (주)노루페인트 정기 교양 강좌 중 DIY 페인팅 관련 소식을 인터넷에서 본 토요타 측이 제안해 옴으로써 기획되었으며, 토요타의 친환경 이미지와 (주)노루페인트의 친환경 제품인 PANTONE Premium Paints가 조화를 이룸에 따라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되었다. 토요타 분당 전시장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토요타와 노루페인트만의 친환경 이미지를 보여주고 셀프 인테리어에 또다른 재미를 선사하고자 이번 협업 마케팅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이벤트는 토요타의 친환경 이미지는 물론, 노루페인트 친환경 페인트 제품까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주)노루페인트, 경기도와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협약 체결

(주)노루페인트는 지난 9월 6일, 경기도와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맑은 숨터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하고 민간 기업의 현물 지원과 환경개선 작업을 통해 실내 공간을 무상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한 아동센터는 리모델링 전과 비교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가 99%, 미세먼지는 49%나 줄어든 결과를 보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노루페인트, 2016 오토모티브 워크 참가



었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기업은 ㈜노루페인트 외 17곳으로, 제조업체는 친환경 페인트와 LED 조명 등 친환경 건축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 업체들은 실내 공기질 측정 및 현금 기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개선 작업은 자원봉사단체인 (사)사랑의집수리가 재능기부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실내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시설에 대한 홍보와 실내 공기질 측정을 지원하게 된다. (사)사랑의집수리 김진욱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실내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에 감사를 표하며 좋은 자재와 전문화된 시공기법으로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과 경기도는 ‘맑은 숨터’ 1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총 20곳의 취약 시설에 대해 개선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루페인트, 2016 오토모티브 워크 참가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및 애프터마켓 전시회인 <오토모티브 워크>가 지난 9월 2일부터 사흘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림에 따라 ㈜노루페인트 자동차보수용도로도 참가하여 관람객들에게 ㈜노루페인트의 앞서가는 자동차보수용도로 기술을 선보였다. 애프터마켓은 제품 판매 후의 정비와 유지보수, 중고 판매 등의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는 이미 100조 원대이며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글로벌 인더스트리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이 2020년까지 7,2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성장세에 따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오토모티브 워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5천 제곱 미터의 전시 공간에 정비와 수리, 유지보수 관리 서비스를 소개하는 '오토서비스 코리아', 튜닝과 업그레이드, 모터 스포츠 등을 집약한 '더튜닝쇼', 캠핑카와 카라반 등 아웃도어와 관련한 '오토캠핑', 그리고 새로 신설된 OEM부품 전시회장 '오토파츠' 등 4개의 전시 섹션을 구성하였다. 또한 수입차 전시 특별관에는 10개 수입차 메이커의 대표 모델도 현장에 서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도록 진열되었다. 개막식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과 임창열 킨텍스 사장, 관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호 차관은 개회사에서 "오토모티브 워크는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발전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하며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부품, 정비 등 애프터마켓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총 230여 업체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한 이번 <오토모티브 워크>의 전체 관람객은 6만 5천 여 명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노루로지넷 이민형 대표이사,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 수상



㈜노루오토코팅, 전 직원과 한마음 산행

(주)노루로지넷

㈜노루로지넷 이민형 대표이사,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포장' 수상

국토교통부가 2016년 물류의 날에 개최한 <제24회 한국물류대상>시상식에서 ㈜노루로지넷 이민형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하였다. 이 행사는 2016년 11월 1일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인을 격려하고 물류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대통령을 대신하여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500여 명의 물류 분야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한국물류대상 시상식에서는 은탑훈장 1명, 산업포장 2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5명, 건설교통부장관표창 45명 등 총 58명이 수상하였으며, 이민형 대표이사는 카자흐스탄 해외 진출 및 위험물 수출입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현재 물류산업은 종전의 단순 수송과 제조업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라 물류와 유통, IT가 결합한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노루오토코팅

전 직원과 한마음 산행

㈜노루오토코팅은 야외활동에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전 직원의 결속력을 다지고 함께 하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한마음 산행을 개최하였다. 지난 10월 21일, 수원 소재의 광고산에 모인 ㈜노루오토코팅 임직원은 오전 10시에 산행을 시작, 광고산 정상까지 올랐다. 산행 후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와 제기차기, 만보기 게임 등의 활동에서도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다. 한마음 산행에 참석했던 직원은 "전 직원이 함께 산행을 하며, 가을 산의 단풍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말을 전했다.



1. 윤리경영실장 한원석 상무(우)와 1기 사내강사/CA로 임명된 김장호 부장(좌) 2. NOROO Way 실무협의회 3. 1기 사내강사/CA로 임명된 김기도 부장 임명장

NOROO Way로 새롭게 시작한다 NOROO Way Restart

NOROO Way Restart, 실무협의회 Kick-off 및 사내강사/CA 선정

지난 9월 7일 NOROO Way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사내강사/CA (Change Agent, 변화관리자)와 실무진을 꾸렸다. NOROO Way 실무협의회는 NOROO Way Restart를 추진하는 조직적 기반으로 NOROO Way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NOROO 문화에 Way를 정착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NOROO Way는 71년간 쌓아온 NOROO인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창립 이래 NOROO 그룹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창업정신과 경영철학, 경영이념 등 NOROO만의 가치관으로 극복해냈다. 이렇듯 긴 역사 속에서 연마된 NOROO만의 독특한 철학이 NOROO Way로 진화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와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NOROO Way

의 접근 및 적용 또한 여러 각도로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노루홀딩스 윤리경영실장 한원석 상무는 “NOROO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NOROO Way를 포털 사이트, 수첩, 액자, 사사 등 일상과 주변에서 접하고 있음에도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를 고민하며 여러 사람들과 검토해 본 결과 NOROO Way Restart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NOROO의 71년을 이끈 NOROO Way를 Restart하는 것은, 100년, 200년, 300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준비하는 것일 게다. 이에 구축된 NOROO Way 실무협의회는 김장호 부장, 김기도 부장이 1기 사내강사 / CA로 활동하고 고재수 차장, 지남철 과장, 이대희 과장, 정목시 주임이 실무진으로 운영 지원하여, 앞으로 NOROO Way 공감대 형성(교육, Contents 개발 / 배포 등)과 토대 마련을 통한 변화관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NOROO 그룹 가족의 진정한 관심과 지지 속에서 NOROO Way Restart는 미래를 향한 탄탄한 대로가 될 것이다.

BEHIND CUT

특집 주제인 '편지'를 위해
NOROO인들이 보내준 가슴 따뜻한 편지의 추억입니다.
오랜만에 편지와 펜을 꺼내보는 게 어떨까요?
편지가 어울리는 계절, 가을을 그냥 보내긴 아쉽습니다.



㈜노루오토코팅 전략기획팀 안세현

논산훈련소에서 여자친구에게 받았던 편지를 보니
옛 생각이 많이 납니다. 매일 매일 써준 편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전희경 과장

벌써 입사 25년차가 되어갑니다. 20대 초반, 회사에서 만나
우정을 나누던 친구의 편지를 오랜만에 찾아 읽어 보니
옛 생각에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서로에게 위안과 기쁨이 되어주던 친구와
앞으로도 우정이 변치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노루로지넷 시스템사업팀 홍영범 과장

어린 조카들이 제 엄마에게 쓴 편지를 보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서툰 글씨로 엄마에게 넘치는 사랑을 고백하네요.
재균아, 재욱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렴!

